



차례

- 저자 서문—한국 근대를 이해하는 새로운 코드 5
- 들어가며—고종, 조선 근대화를 꿈꾸다 13

1장 알렌, 제중원 신화를 창조하다

삼일천하, 갑신정변이 낳은 역사적 우연	21
민씨 가문의 황태자 민영익	26
서양의 외과술로 살아나다	27
죽은 시계도 고친다는 서양 의술	33
서양 의사의 눈에 비친 조선	37

2장 새 의학으로 새 나라를 만들자

실학자들, 새로운 의학을 고민하다	43
마마 귀신과 종두법의 싸움	49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콜레라	53
저팬 타운에 서양식 병원이 등장하다	56
암행어사, 일본의 서양식 병원에 가다	60
해민서·활인서를 과감히 혁파하다	68
조선은 왜 미국을 짝사랑했을까	73
서양의 것, 무엇을 먼저 받아들일 것인가	81

춘원 이광수와 콜레라	86
한눈에 보는 지식영의 생애	
조선 최초의 여행자들	

3장 제중원, 조선 백성에게 첫선을 보이다

통리아문에서 방을 내걸다	95
보름 만에 바뀐 이름	99
역적의 집에 병원을 열다	100
1년 운영비는 3000원	105
제중원은 어떻게 운영되었을까	107
구리개로 이사 가다	109
제중원은 국립병원이다	115
급진개화파의 자존심, 흥영식	118
새 시대 새로운 인재를 키우자	

4장 제중원 사람들

마지막 대제학, 근대 국립병원의 원장을 맡다	125
제중원 주사들은 최신식 관리들이라네	131
푸른 눈의 선교 의사들	139
알렌, 악몽 같은 중국 생활을 뒤로하고 조선에 정착하다	144
한국 장로교의 대부 언더우드	147
감리교 의료 선교사 스크랜턴	149
의대 수석 장학생 헤론	151
파워, 하디, 빈턴	152





명성을 뒤로하고 조선을 찾아온 에비슨	154
방거 부인 엘러스	157
명성황후가 신임한 여의사 호턴	158
온건개화파의 상징 김윤식	164
호턴, 남사당놀이를 구경하다	
에비슨이 들려주는 단발령 이야기	

5장 신식 병원에서는 무슨 병을 고치나

키니네 열 알에 엽전 500푼이오	171
인기 만발 금계랍	174
제중원의 여의사들	177
어의가 된 의료 선교사들	180
콜레라를 막아라	184
‘남녀칠세부동석’, 애국심에 무릎을 꿇다	188

6장 제중원에 들고 났던 서양 의사들

알렌과 스크랜턴의 어색한 동거	193
간접 선교냐 직접 선교냐	197
굴러들어 온 돌이 박힌 돌을 뽑다	200
양놈들이 아이들을 팔아넘긴다	204
알렌, 선교사를 사직하다	207
새 의사를 둘러싼 각국의 움직임	216

1885~1894년 미국 감리회의 의료 선교	221
기포드의 전도 여행	
개신교를 놀라게 한 평안도의 기적	

7장 조선인 양의를 키우다

의학당, 문을 열다	231
최초의 의대생들은 누구였을까	236
그 의대생들은 어디로 갔을까	238
의학도 이진호의 출세담	244
한국인 최초의 의사 서재필	
박서양, 백정에서 의사로 다시 독립운동가로	

8장 조선 정부, 운영권을 넘기다

에비슨, 제중원을 정상 궤도에 올리다	251
위기에서 기회로	255
가난한 정부, 위협받는 국왕	260
모종의 교섭	265
근대화, 그 미완의 프로젝트	270
외국인들이 본 1894년 조선	278
▪ 맺으며—옛 왕조, 가장 새것을 추구하다	281
▪ 참고 문헌	285

